

근대 초기 학교와 조선인의 지적 욕망:

이광수의 191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조윤정

충북대 강사, 한국 현대소설 전공

violetkorean@naver.com

- I. 지사, 문사, 교사라는 십자가
- II. 애국심이 고안한 지식인의 두 얼굴
- III. 우정에 내재한 일탈과 승화의 가능성
- IV. 앓을 전이하는 학교 밖의 여성들
- V. 결론

I. 지사, 문사, 교사라는 십자가

1910년대 이광수의 문학에는 배움을 위한, 배움에 의한 헌신자들의 자기 고백이 자주 나타난다. 그 고백 속에서 이광수는 학생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다. 1910년 4월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잡지 《少年》에 논설을 발표하고, 조선 민족의 스승되기를 자처한다. 메이지학원 보통부를 갓 졸업하고 교사가 된 이광수는 ‘교사=학도’¹⁾의 논리를 통해 논설을 쓴다. 이광수에게 있어서 오산학교는 민족의 선구자를 자처한 자신의 글쓰기를 유인(誘引)한 곳이다. 1910년대 이광수 글쓰기에 나타난 지식인으로서의 이상과 환멸은 이 ‘학교’를 배경으로 발화된다.

지금까지 이광수의 초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의 소설이 어떻게 근대성을 획득하는지, 근대성이 이광수 문학의 계몽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은 계몽적 ‘교육소설’로 언급된다.²⁾ 그의 초기문학이 계몽적 도구로서의 문학의 역할을 강화시켜주었다는 연구³⁾와 계몽이라는 민족적 실천 과제가 1910년대 이광수 문학의 근대성 성취에 장애가 되었다는 연구⁴⁾는 상반된 결론을 갖고 있지만, 이광수 문학이 가진 중심적인 특징이 계몽에 놓여 있음을 공유한다. 또한, 《매일신보》의 필자가 된 이후의 이광수는 체제 순응적 계몽주의자로 언급되기도 한다.⁵⁾ 이처럼 『무정』을 비롯한 이광수의 초기 소설은 교화적 언술의 반복 제시, 사제관계의 인물 설정⁶⁾ 등에서 계몽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소설에서 교육공간으로서의 학교는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행위에 ‘갈등하다’와 ‘괴로워하다’가 점철된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의 학창시절과

- 1) 孤舟, 「今日 我韓青年의 境遇」, 《少年》 제3년 6권(신문관, 1910.6), 28쪽.
- 2) 이재선, 「형성적 교육소설로서의 〈무정〉」, 『문학사상』232호(문학사상사, 1992.2), 86쪽; _____, 「〈무정〉과 가르침의 시학」, 『문학사상』317호(문학사상사, 1999.3), 42쪽.
- 3) 정희모, 「이광수의 초기사상과 문학론」, 『문학과 의식』29호(화서, 1995.8), 258쪽.
- 4) 손정수, 「1910년대 이광수의 문학론과 작품의 관련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85(일지사, 1996), 63쪽; 박혜경, 「〈무정〉의 계몽성과 근대성 재고」, 『국어국문학』129(국어국문학회, 2002), 461쪽.
- 5) 김영민, 「이광수 초기 문학의 변모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34(한국문학연구학회, 2008.2), 132쪽.
- 6)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문학동네, 2000), 75쪽.

교사 생활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밝힌 김윤식⁷⁾, 메이지시대 말기 일본의 사조와 이광수의 지적 편력을 대비한 하타노 세츠코⁸⁾의 논의는 이 논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이광수의 열정 혹은 이상은 늘 교육에 대한 회의, 학문습득이 가져온 고독감과 공존한다. ‘알다’와 ‘하다’에 수반된 이러한 감정은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⁹⁾ 정신적 성숙의 과정, ‘복종하던 규칙에 의문을 일으키기 시작’¹⁰⁾하는 비판적 태도와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적 개인이 탄생한다. 그는 장편 『무정』을 쓸 때, “그 시대의 조선청년의 이상과 고민, 진로에 한 암시를 주지는”¹¹⁾ 의도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과 고민이라는 두 개의 심리는 신구(新舊), 민족과 개인,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지식인이 경험하는 갈등을 암시한다. 이광수 문학은 절대화된 집단적 가치체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에 대항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관련된다. 감시와 통제는 식민지 교육제도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적 위계가 전복되고, 지식인의 허무주의가 탄생하며, 계급을 초월한 우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당대 지식인들은 조선총독부가 교육제도를 운용하며 기대했던 ‘하급기능인’과 달리 조선 문화에 새로운 자극점이 된다.

식민국가는 식민지의 주민과 본국의 주민 양자 모두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문명적 기준에 입각하여 식민적 차이를 합리화한다. 또한, ‘진보’와 ‘개선’이란 명목으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 식민국가의 헤게모니 기획이 후진적인 식민지 주민에게 근대적 삶의 방식을 부여하는 거대한 교육적 실험의 형식을 띠는 것도 이 때문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식민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역설을 내재한다. 식민지 엘리트가 제국권력의 현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민권력의 헤게모니 추구과정은 식민지 행위주체(colonial agency)와의

7)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솔, 1999), 145-394쪽.

8) 波田野節子, 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소명, 2008), 19-96쪽.

9) Immanuel Kant, 이한구 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서광사, 1992), 13쪽.

10) Peter Gay, 주명철 역, 『계몽주의의 기원』(민음사, 1998), 197-198쪽.

11) 이광수, 「다난한 반생의 도정」, 『이광수 전집』8(삼중당, 1972), 452쪽.

12) Partha Chatterjee, *A Modern Science of Politics for the Colonized, Texts of power: Emerging Disciplines in Colonial Bengal*(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5), p.104.

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식민지의 엘리트를 포함한 행위 주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광수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교육공간은 소설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당대 지식인에게 있어서 식민지 근대성의 추동력은 교육적 사명이었다.¹³⁾ 민족의 성숙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엘리트에 의해 민족주의적 근대성 기획이 나타난다.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교육은 강제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식민지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한다. 이광수 소설 「헌신자」에 나타난 남강 이승훈의 오산학교 설립, 「무정」에 나타난 경신학교 교사 형식의 교원생활, 「김경」에서 교사로서의 자기를 성찰하는 내면 역시 가르치는 자가 가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광수는 『무정』을 발표하기 전, 「대구에서」, 「동경잡신」, 「농촌계발」과 같은 논설을 발표한 바 있다. 이광수가 논설에서 문명보급을 위해 우선시한 것은 교육사업이다. 그러나 그가 논설에서 단호하게 주장하는 조선의 교육운동은, 소설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 위선적 교사의 상 등으로 굴절된다. 지식인으로서의 이상과 조선현실 사이의 모순이 논설과 소설 사이의 거리감을 형성해낸 것이다.

식민지 민족주의의 모순적 구조는 문제적인 것(the problematic)과 논제적인 것(the thematic)에 기반한다.¹⁴⁾ 전자는 식민주의 담론을 거부하고 민족이 자율적이고 주권적 주체임을 주장한다. 후자는 식민담론을 정당화하는 인식론적이고 윤리적 체계 즉, 계몽주의의 보편성에 대한 수용을 전제한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 담론 내부의 모순은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민족의 균질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식민 상황에서 민족의 독립과 선진문명의 도입을 통한 민족의 계몽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광수는 1900년대 후반 대한제국의 애국계몽사상과 메이지시대 말기 일본 사조의 영향을 한 몸에 지녔던 인물이다. 지사, 문사, 교사라는 세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이광수에게 있어서 지사와 교사라는

13) Partha Chatterjee, 강내희 역, 「탈식민지 민주 국가들에서의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 『문화과학』25호(문화과학사, 2001), 137쪽.

14) Partha Chatterjee,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a derivative discourse*(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p. 37-39.

두 개의 축을 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문사라는 입지였다. 1910년 3월, 오산학교에 부임한 이광수는 《소년》에 「여(余)의 자각한 인생」을 발표한 이후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다. 또한, 1918년 조선청년독립단 조직에 가담하여 독립선언서를 집필하고, 1920년 홍사단원이 되기까지의 기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그는 “政治 아래서 自由로 同胞에게 通情할 수 없는 心懷의 一部分을 말하는 方便으로 小說의 붓을 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또한, ‘윤리적 동기 없이 소설을 써본 일이 없다’¹⁵⁾고도 말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윤리를 다른 이의 것으로 전이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썼던 것이다.

본고는 이광수의 초기 소설과 논설에 나타난 ‘학교라는 공간이 지사, 문사, 교사라는 삼위일체의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의식을 잘 드러내는 공간임을 전제한다. 이광수가 문명보급의 두 가지 요건으로 언급한 것은 ‘학교교육’과 ‘학술잡지와 서적의 간행’¹⁶⁾이다. 실제로 식민지 시대 많은 작가들에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1910년대 조선의 교육적 상황과 이광수의 소명의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소설은 당대 교육문화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식인의 글쓰기를 유인하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된다. 본고는 1910년대 발표된 이광수의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되, 이 시기를 회고하는 그의 수필과 논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의 글에 내재한 지식인의 심리와 지식인을 바라보는 하위주체의 시선을 통해 통계적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식민지 학교문화를 고찰할 것이다.

II. 애국심이 고안한 지식인의 두 얼굴

이광수 소설에는 교육받은 자의 존재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나타난다. 중학교를 마치고 조선에 돌아오는 이광수의 내면에는 민족 계몽에 대한 열정과 자기 현시욕,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가 공존한다. 그는 「여(余)의 자각한 인생」과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조선에 돌아온 이유를 ‘민중 각성’에 대한 책임감과 ‘최고 지식에 달한’¹⁷⁾ 자신의 지적

15) 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이광수전집』10(삼중당, 1972), 460-462쪽.

16) 이광수, 「동경잡신」, 『이광수전집』10(삼중당, 1972), 322-323쪽.

17)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 전집』6(삼중당, 1972), 306쪽.

수준에서 찾는다. 이 글에는 제국 일본의 토카이이숙(東海義塾), 타이세이 중학(大成中學)을 거쳐 메이지학원(明治學院)을 졸업한 자, 열아홉 살 소년 교사의 지적 오만함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나라를 “榮枯, 生存慾” 만으로 생각하다가 ‘이상하게도’ “열렬한 사랑의 대상물”¹⁸⁾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광수는 나라리는 추상적 존재를 대신해 오산학교라는 구체적 대상을 상징하고, 사랑을 시작한다.¹⁹⁾ 그가 언급한 ‘이상하게도’란 수식어는 동경에 익숙한 유학생이 자신의 애국심에 대해 갖는 자의식을 보여준다.

이광수에게 있어서 오산학교의 이승훈과 『무정』의 박진사는 선구자인 동시에 시대적 희생자, 애국심을 현현한 인물들이다. 이 두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는 1910년대 정치·문화적 상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908년부터 평양에서는 안창호에 의해 발족한 신민회의 두 가지 사업 - 대성학교와 마산동 자기회사의 설립 - 이 이루어졌다. 대성학교는 ‘민족운동의 인재’와 ‘국민교육의 사부(師傅)’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²⁰⁾ 대성학교를 ‘교육의 본보기’로 삼으려했던 안창호의 뜻을 이어받아 이승훈이 정주군 오산면 용동에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마산동 자기회사를 맡아 운영한다. 이광수는 대성학교와 안창호에 영향받은 이승훈의 일생을 「헌신자」와 『무정』의 박진사의 일생에 투사한다. 상놈이라는 천대를 면하고 양반행세를 하고자 용동에 서당을 건축 중이던 이승훈이 가까이 상투를 자를 수 있었던 것은 상놈인 자신이 조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1910년대 교육은 1911년에 공포된 제1차 교육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교육령은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 ‘보통교육·실업교육’, ‘國語(日語)의 보급’을 목표로 삼는다.²¹⁾ 그러나 대다수의 사립학교는 조선역사와 조선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정부 규정이 아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사들을 고용했다.²²⁾ 이런 사립학교의 움직임은 구국운동의 일환이었기에 사립학교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위협했다. 당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학교를 정치 기관에 이용하려는 자’, ‘정치·사회 문제를

18) 이광수, 「여(余)의 자각한 인생」, 『이광수 전집』1(삼중당, 1972), 577쪽.

19) 波田野節子, 앞의 책, 67쪽.

20) 이광수, 『島山安昌浩』(대성문화사, 1959), 25쪽.

21) 오천석, 『한국신교육사』(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244-245쪽.

22) 홍문중, 『조선에서의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학지사, 2003), 190-192쪽.

논의케 하는 자를 ‘학교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것’²³⁾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실제 이광수가 오산학교에 부임하여 교사로 일하던 시절, 이승훈은 용동에서 “理想鄉運動”을 주도한다.²⁴⁾ 그 이상향운동의 중심에 오산학교가 있었고, 이광수는 그 학교에서 초기 이상향 건설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했다. 이상향 운동의 세부적 내용은 이광수가 3개월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농촌계발」에도 나타난다. 「농촌계발」의 주인공 김일은 동경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고향에 돌아와 농촌계발에 힘쓰는 인물이지만, 그는 1914년 동경 유학 후 용동에 돌아와 교육에 힘썼던 이광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김일은 그림과 환등회(幻燈會)를 통해 문명국의 삼림, 도로, 제방, 학교, 병원 등의 사정을 보여주고 농민들을 각성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소년들의 교육문제이다.

이 글에는 김일이 ‘양반과 상놈’의 수사를 통해 학교 교육이 “입신출세”의 수단이 됨을 강조하는 장면이 빈번히 나타난다. 농민을 설득하기 위한 이러한 수사는 신지식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일은 교육에 대한 각성 뿐 아니라, 입학수속 및 학생들의 위생상태까지 점검하고, 하학 후에는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한다. 김일은 한 마을에 거주하는 가족사의 내밀한 부분까지 개입하는 자신의 노력을 “宗教家的, 獻身的 熱情”²⁵⁾으로 언급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입신출세를 말하지만, 정작 그는 입신출세와 다른 방향에서 문명화를 실천한다. 마을 사람들의 문명화에 대한 그의 욕망은 ‘민족애’로 환원될 수 있으며, 그 욕망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이’된다.

김일의 문명화 기획이 거부감 없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삼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구시대 이데올로기의 수사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양반과 상놈이 가진 계급적 거리감이 문명국과 조선의 격차에 대응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마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김일은 이를 예수의 제자가 처음엔 12명이었으나, 4억 명으로 늘어나는 데 비유한다. 이때, 김일의

23)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306-308쪽; 오천석, 앞의 책, 213-214면 재인용.

24) 김형식, 「理想鄉 龍洞과 五山學校」, 『한국기독교사연구』(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85), 16쪽.

25) 이광수, 「농촌계발」, 『이광수전집』10(삼중당, 1972), 81쪽.

교육사상은 하나의 ‘복음’으로 승화된다. 이광수는 신이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 예수의 삶을 김일의 선구자적 입지에 그대로 대입시킨다. 이러한 양상은 자신을 세례자 요한과 동일시하며 대동강가나 한강에서 “회개하라, 너희 조선사람들아!”라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그의 자서전」의 남궁석에게서 반복된다. 박계주와 곽학송이 이광수의 생애를 ‘신에게 접근하려던 인간의 슬픈 역사’²⁶⁾라 명명한 것은 그의 계몽적 야망을 대변한다. 문명 제일의 시대에 자기의 가르침이 민족 구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이광수가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던 희망인 동시에, 고아였던 작가가 자기를 증명하는 힘이기도 했다.

이광수는 학생들에게 “모든 청년이 교사이자 학도”²⁷⁾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교사이자 학생이었다. 이승훈을 모델로 그린 「헌신자」나 『무정』의 박진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대상에 대한 경외심과 안타까움을 함께 가지는 이유도 교육사업을 향한 열정은 공유하되, 교육방법에 대한 세대차를 느끼기 때문이다. 『무정』에서 이른 시기에 개명한 박선생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학교’였다. 형식은 그의 일생을 통해 시대의 선구자는 헌신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소년』에 실었던 「헌신자」가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의 성공담을 담고 있다면, 『무정』의 박진사는 그보다 앞선 시기에 학교를 세우고 허물어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 시대가 옮겨갈 때마다 희생이 있는 것이라는 형식의 말처럼 형식은 자신이 당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김경」(1915)의 ‘내가 느끼는 ‘허무감’이나, 『무정』의 형식이 느끼는 ‘선각자의 적막과 비애’는 교육적 희생에 대한 이광수의 자기 연민이라 할 수 있다.

‘내가 內弱해 이렇다. 왜 五山 따위를 떼어 놓지 못하고, 거기 매달리어 언제까지든지 이 無意味한 것을 繼續하려는고. 왜 이번 길에 다시 東京으로 달아나지 아니하고, 어슬렁어슬렁 기어 들어왔는고.’ 하고 當場 일어나 停車場으로 되돌아 나가, 대번 車를 타고 달아나고 싶다 한다.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본즉, ‘오산은 가난하고 외로운 學校라. 내가 가면 다시 教師를 求하기 어려우려니, 다시 教師를 求하지 못하면, 그 學生들은 어찌 되나. 또 같이 四, 五年 고생하여 오던 同僚, 내게는 어른되는 分들은 얼마나 落膽하여 할까. 옳다, 이곳이 나를 犧牲할 곳이로다. 자기 犧牲 工夫를

26)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삼중당, 1962), 35쪽.

27) 이광수, 「조선 사람인 청년에게」, 『이광수 전집』1(삼중당, 1972), 534쪽; _____, 「今日我韓青年의境遇」, 앞의 책, 528쪽.

여기서 할 것이로다.’ 하고, 겨우 떠오르는 가슴을 鐵靜한다. 金鏡은 제 行爲에 무엇이든 지 高尚한 意義를 붙이고야 미는 버릇이 있다. 이번도 이 ‘自己犧牲’이란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간 것이다.²⁸⁾

위의 글은 이광수가 1915년 잠시 귀국하여 오산학교에 있을 때 쓴 것으로 교사생활에 대한 그의 양가감정을 잘 보여준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말이 좀 걸가지로 들어가지마는”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형식의 교사 생활에 대해 길게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도 형식의 교사생활은 ‘사랑과 갈등’으로 집약된다. 가난한 고아로 친구 없이 학창시절을 보낸 형식은 자신에게 결여된 소년시대를 학생들을 통해 대리체험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형식은 학생에게 ‘사랑’을 경험한다. 그러나 형식의 사랑을 받는 희경은 사년급이 되자, 중학교 교사를 우습게 본다. 이때, 교사와 학생의 위계는 심리적으로 전복된다. 교사에 대한 학생 사이의 지적 경합과 경멸의 의식은 형식이 기대했던 사랑과 존경의 가능성을 폐기한다.

「김경」의 ‘내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데 대해 초조와 불안을 느낀다면, 형식은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김경」은 이광수가 오산학교 교사로 있을 때 창작한 작품이고, 『무정』은 이광수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여 제국의 지식을 한껏 받아들였을 때의 작품이다. 자신의 학문적 정도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이광수는 자신을 위협했던 제자들의 시선을 과거와 다르게 기억한다. 형식은 조선 사람이 살아날 유일한 길로, 일본의 문명 정도에 이르기 위한 공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제국의 지식을 모방하여 식민지인들을 가르치되, 자신을 모방하려는 학생들을 차이화한다. 이처럼 식민지 지식인에게 생겨난 애국심은 해방에의 욕망과 자기 현시의 야심을 공유한다.

교사라는 지위가 형식에게 완전한 도달점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교사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편 『무정』에서 형식은 교사 생활을 “임시의 생활, 준비의 생활”로 여겼기에 책을 사고 남은 돈은 가난한 학생에게 나눠준다. 그러나 배학감의 모략으로 학생들에게 추궁당할 때, 형식은 사년급 학생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깨닫는다. 이 부분에서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되, 스승이 제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 된다.

28) 이광수, 「金鏡」, 『이광수 전집』1(삼중당, 1972), 571쪽.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던 학교로부터의 축출은 오히려 교사인 형식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자신을 지탱해준 생의 근원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형식이 경성학교 교사직을 사직하고 나오며, 자신은 “목숨의 뿌리를 잃은 것”이라 독백하는 장면은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자의 비감을 드러낸다.

형식은 비도덕적인 배학감에 의해 교사로서의 입지를 잃었을 때, 사랑의 대상이었던 학생에 의해 상실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는 상실감의 대응물을 고안한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장 안에 설 수 있는 방법, 다시 학생이 되는 것이다. 형식은 선형과의 미국 유학을 계획하며, ‘조선의 페스탈로치가 되어 돌아올 것을 다짐한다. 일본에 의한 조선의 교육정책이 ‘하급 기능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의 미국행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전유라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조상 적부터 전해오는 사상의 계통은 다 잃어버리고 혼돈한 외국 사상 속에서”²⁹⁾ ‘표준’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수혜라는 천재지변 앞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조선적 실천력을 전제해야 함을 느낀다.

형식은 조선민족을 “북해도의 아이누”와 같은 처지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 ‘교육’과 ‘실행’으로 조선민족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산 교훈을 준 것이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요 큰 웅변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었다”³⁰⁾ 라는 구절은 형식이 얻은 교훈을 집약한다. 이광수는 상해 여행을 하고 쓴 「상해인상기」에서도 ‘중국의 학교 방문’을 통해 식민적 현실을 느낀 바 있다. 이광수는 ‘英文’으로 수업을 하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중국인들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들에게서 ‘似而非洋魂의 浸潤’³¹⁾을 본다. 이광수에게 있어서 진정한 배움은 ‘학문적 독립에 대한 열성’과 등가를 이룬다.

이광수에게 유학은 서양 학문으로의 침윤이기보다 서양학문의 조선적 계발로 이어진다. 이때, 유학은 애국심이 고안한 조선적 발전의 수단이 된다. 이광수가 소설의 말미에서 독자에게 형식의 지식 정도를 무시했던

29) 이광수, 「無情」, 『이광수 전집』1(삼중당, 1972), 193쪽.

30) 위의 책, 205쪽.

31) 이광수, 「上海印象記」, 『이광수전집』9(삼중당, 1972), 134쪽.

이희경, 김종렬, 배학감의 안부를 알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일깨우고 남을 일깨우지 않으면 쉽게 조로(早老)하거나, 무모해지거나, 타락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고아인 이광수에게 있어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학교, 민족이라는 준거점은 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 참사람은 타자를 통해 자신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을 증명해줄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관계 속에서 이광수는 연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조선인이 될 수 있다. 그의 소설이 근대 초기 조선인의 학교를 향한 열정과 학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이자 지사인 자기를 글로써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III. 우정에 내재한 일탈과 승화의 가능성

교육에 대한 이광수의 열정은 총독부가 기획한 국토기행문 쓰기를 교육논설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1916년 《매일신보》의 기획에 따라 이광수는 오도답파여행을 떠나고, 신문에 그 여행기를 신는다. 대구에 간 이광수는 때 아닌 강도사건을 접하고, 그의 대구 여행기는 지식인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논설로 변모한다. 병합 전 교육을 받고, 병합 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강도사건을 보며, 이광수는 그 원인을 “教育의 未備와 社會의 墮落”³²⁾에서 찾는다. 1916년과 1917년 《매일신보》에는 사건과 관련한 기사³³⁾가 실리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와 범죄자들의 체포 현황 및 처벌 내용만이 언급될 뿐이다.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연재할 오도답파여행기에서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피상적으로 교육의 미비와 사회의 타락을 문제 삼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당대 조선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광수는 ‘병합

32) 이광수, 「대구에서」, 《매일신보》, 1916.9.23.

이광수는 피상적으로는 이 사건을 청년들의 ‘정치적 음모’와 ‘주색의 쾌락’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격렬한 사상을 고취하던 자가 동경에 와서 2, 3년간 교육을 받노라면 인구몽(引舊夢)을 버려 이전 동지에게 부패하였다는 조소’를 듣게 된다는 말을 통해 이 강도사건이 교육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33) 「大邱拳銃強盜 全部就縛」, 《매일신보》, 1916.9.22.

「大邱強盜豫審決定됨」, 《매일신보》, 1917.2.24.

전'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집단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신의 여행기를 통해 폭로한다. 조선총독부는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1908년의 '사립학교령', 1911년의 '사립학교규칙', 1915년의 '사립학교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조선의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전개한다.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이 시기 폐교되고 그 일부는 공립학교로 전환된다.³⁴⁾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들은 관공립학교 졸업생들과 차별대우를 받는다. 강도들은 교육을 받고, 재산도 있고, 대구청년의 진보향상을 도모하던 자신들이 왜 강도가 되었는지 공공연히 발화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 이광수는 병합 전 사립학교 교육을 받은 조선청년들이 활동기반을 잃고 타락한 장면을 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다.

그렇다면, 오도답과 여행기 이후 《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정』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이광수는 이 소설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설교하면서도 조선의 학교를 비판받아야 할 장소로 그린다. 그는 『무정』을 발표하기 이전, 「교육가 제씨에게」라는 글을 통해 조선의 교육이 가진 세 개의 '결핍'으로 “教育의 根本思想 不解, 知識과 教育方法의 不足, 教育界에 獻身하려는 精神의 缺乏”³⁵⁾을 언급한다. 이 논설에서 이광수는 교사들이 학교를 '열패한 자의 일시적 피난처'로 생각하는 안일함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조선에서 교장이나 학감이 될 만한 책임자가 없다고 말한다. 타락한 조선 교육의 상황은 『무정』에서 배학감에게 투사된다. 학감 배명식은 '동경고등사범학교' 졸업생으로 경성학교에서 유일하게 고등사범을 졸업한 자이다. 그는 자신이 “일본 모든 일류 교육가보다도 뛰어난 새 학설과 새 교육의 이상을 가졌노라”³⁶⁾고 자부한다. 또한, 그는 “규칙적이란 말과 '엄하게'라는 말”을 잘 쓰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신학설의 교육 원리'에 입각하여 이백여 조의 대규칙을 제정하고, 일본인보다 심하게 조선학생을 억압한다. 소설에서 배학감은 교육에 대한 이상이 없이 '기계적이고 모방적으로' 제국의 교육제도를 따르는, '교육기계'³⁷⁾의

34) 오천석, 『한국신교육사』(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261-263쪽;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22쪽.

35) 이광수, 「教育家 諸氏에게」, 『이광수전집』10(삼중당, 1972), 54쪽.

36) 위의 책, 같은 쪽.

37) 미셀 푸코는 『권력/지식』에서 지식이 언제나 권력관계를 동반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감시와 처벌』에서는 사회제도가 인간의 신체를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규율을 통해 효과적인 '기계-인간'(순종하는 신체)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이론에

형상이다. 이광수는 이 배학감을 통해 무식하고 무책임한 교사를 희화화한다.

소설에서 학생들은 배학감을 비롯한 부패 교사를 축출하기 위해 학생운동을 준비한다. 이 시기 조선에는 학교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으로 인해 퇴학자와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청년들이 많았다.³⁸⁾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학교에 대한 저항과 학문적 열정이다. 이광수는 「신생활론」에서 인류의 신생활을 ‘인위적 진화’와 ‘무의식적 진화’로 구별하고, 그 중에서 인위적 진화의 주된 예로 ‘교육’과 ‘혁명’을 든 바 있다. 1910년대 이광수는 오산학교 교사로, 2.8독립선언서의 필자로 인위적 진화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창조해낸 경성학교 학생 이희경과 김종렬은 인위적 진화의 장 안에서 ‘혁명’을 꾀한다. 이 두 인물은 형식을 찾아와 “동맹 퇴학”을 예고한다. ‘학교교육=문명화’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제출한 ‘퇴학 청원서’는 기실 조선학생이 교육공간에 던진 집단적 혈서라 할 수 있다.

“저희 모교 당국은 부패지극(腐敗之極)에 달하였습니다. 차제(此際)를 당하여 저희 용감한 청년들이 일대 혁명을 아니 일으키면, 오히려 모교는 멸망할 것이옵시다”하고 결심의 굳음이 말에 보인다.³⁹⁾

배학감이 동맹휴학의 원인이 된 이유는 월향이라는 기생과의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윤리적으로 완전한 교사를 상상하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흥미의 대상이 된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교사로부터 학생을 향한 ‘감시의 시선’은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향하는 ‘역방향성’을 띤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 학생들과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수용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예속’⁴⁰⁾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맹퇴학은 학교에 대한 비판의식과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심정적 옹호,

의하면, 교육제도는 권력전략과 지식기술이 작동하는 ‘기술-정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스피박은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에서 푸코의 ‘지식/권력’과 ‘기계’ 개념을 다시 읽으며, 제도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한 기제로서의 교육제도를 거대한 ‘교육기계’로 언급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 비판한다. Mi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나남, 1997), 203-253쪽; Gayatri Chakravorty Spivak, 태혜숙 역,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갈무리, 2006), 107-150쪽.

38) 김호일, 『한국 근대 학생운동사』(선인, 2005), 81-83쪽.

39) 이광수, 「무정」, 앞의 책, 44쪽.

40) Jacques Rancière,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궁리, 2008), 173쪽.

‘우정의 관계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창출하고,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 학교를 일탈하는 힘, 혹은 개인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광수는 소설의 화자가 교사일 때와 학생일 때 글쓰기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 교사가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소설에서 이광수는 문명보급에 대한 확신, 지적 충만감에 가득찬 상태의 글쓰기를 한다. 그러나 주요인물이 학생일 경우, “文明의 보기가 異國 異時代의 風物을 對함과 如히, 生疎하고 難澁”⁴¹⁾함을 토로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 때문에 「동경잡신」과 같이 화자가 학생일 때, 화자는 학습의 나태와 문화적 열등감 때문에 ‘반성’과 ‘수치’를 반복한다. 그리고 자기비하가 극에 달했을 때, 주체는 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자살을 생각한다. 이광수가 말했던 “人爲的 進化”라는 문명화의 방법은 ‘속도의 쾌감’과 함께 ‘자기 소진의 고통’을 동반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황」은 학생을 향한 교사의 애정, 조선인의 교화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허무감과 병적 상황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1918년에 발표된 이 소설에는 6년간 매일 6-7시간씩 분필 가루를 먹으며 붓을 잡았던 ‘나’가 있다. ‘나’는 자신의 노력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허무와 비애가 병이 된 인물이다. 그가 느끼는 번민은 학교를 일탈한 교사의 심경으로 치환될 수 있다. ‘나’는 감기를 앓는 와중에 ‘적막’과 ‘추위’를 느끼며, 애인이었던 조선이 자신의 사랑에 답하지 않는 데 대한 괴로움을 토로한다.

소설적 정황으로 보아, ‘나’는 교사 일을 그만두고 유학생이 된 인물이다. 그는 병을 앓는 와중에 친구 K군이 “내 머리를 짚어”줌을 느끼며, “눈을 뜨고 한 팔로 K군의 허리를” 안음으로써 친밀감을 표시한다. K군은 나에게 조선을 위해 일할 것을 당부하지만, “나는 조선을 유일한 애인으로 삼아” 살아갈 결심을 하지 못한다. 조선은 사랑과 욕망의 대상이 되기에 추상적이다. 그에 반해 ‘나’가 K와 맺는 관계는 자신이 K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하며, 성취 불가능한 사랑과 욕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지닌다.⁴²⁾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누는

41) 이광수, 「동경잡신」, 앞의 책, 323쪽.

42) 신지연, 「이광수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21(상허학회, 2007.10), 187쪽.

동성애적 관계가 ‘민족의 교화’를 유인하는 ‘형제애’의 속성을 가지며, ‘나’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K군의 언어가 ‘조선인 전체’를 발화자로 삼아 ‘설득’의 형식을 띠는 점이다.

이 소설은 유학생 기숙사를 배경으로 하며, 소설 말미에는 1917년 1월 17일에 작성된 것이라 밝혀져 있다.⁴³⁾ 이 시기 이광수는 서춘, 최승만, 김도태, 현진건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⁴⁴⁾ 그리고 이광수는 최승만, 전영택과 함께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在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에서 조선민족에게 문명을 전달할 목적으로 잡지 《학지광》을 편집·간행한다. 「방황」에서 ‘나’가 누워있는 병석은 기숙사료, 사적인 장소이되 공공의 공간이며 감시의 공간이다. ‘나’와 K는 이 기숙사 방 안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동시에 ‘조선인 전체가 거는 기대와 같은 담화를 주고받는다. 이 내밀한 몸짓과 조선인의 이상적 발화가 일본 유학생 기숙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학생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총독부의 기획이 기숙사라는 장소에서 전복되기 때문이다.

‘나’와 K는 학생, 기숙사생이라는 자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고, 그 안에서 우정관계를 형성한다. K군은 ‘나’의 곁에 실재하며 감각될 수 있는 존재로, 추상적인 대상으로서의 조선인 혹은 조선이 야기한 공허감을 메워준다. 그럼에도 ‘나’가 “세상 義務의 壓迫과 愛情의 羈絆 없는 싸늘하고 외로운 生活”을 느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인 K군이 남성이기에 결국 그 관계성 역시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고 ‘공허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결국 「방황」의 ‘나’는 열정과 사랑이 초래한 허무감이 병이 된 인물이다.

이광수는 1차 동경유학 시절, 『白金學報』에 실었던 「愛か」를 통해 동성애가 가진 문길의 좌절을 그린 바 있다. 그리고 「방황」 이후, 「윤광호」를 통해 청년 이광수가 가진 자기 현시의 욕망과 동정애의 기대가 한 개인을 향했을 때, 열정의 과잉을 낳고 결국 자살에 이름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정적 관계는 ‘동맹퇴학’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애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맹휴학이 우정의 집단화라면, 동성애와 연애사건은 우정

43) 春園, 「彷徨」, 《青春》12호(신문관, 1918.3), 82쪽.

44) 최승만, 『나의 회고록』(인하대학교출판부, 1979), 71쪽.

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밀화된 상태이다. 『무정』에서 비윤리적인 교사를 축출하기 위한 학생들의 '퇴학청원서'는 배학감의 모략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윤광호의 '혈서'는 P에 의해 무참히 거절당한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들의 글쓰기는 발신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신자를 향한 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방황」과 「윤광호」는 학교라는 공간이 담지한 주체의 사랑과 열정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주체의 행동과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달라진다. 「방황」의 '나'가 '민족애'와 '형제애'에 기반한 동정의 시선을 받는 것과 달리, 「윤광호」에서 윤광호는 조소와 냉소의 시선을 받는다. 「윤광호」는 이광수와 동기 유학생인 徐○이란 친구의 동성애를 모델로 한 것⁴⁵⁾이다. 신문에 날 정도로 지식이 뛰어난 특대생 윤광호는 동경 K대학 경제과 2학년 학생이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P에게 '혈서'를 보내지만, 끝내 거절당한다. 그리고 특대생으로 신문에 이름을 올려 유학생 사회의 추앙을 받았던 그는 실연 때문에 자살한 학생으로 세간의 비웃음을 받는다.

특대생이라는 '지적 서열화'와 당대 '동성애 문화' 안에서 공공연하게 실연자로 전락한 윤광호의 상황은 '학교'라는 공간적 배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당대 '와세다 대학'이라는 지적 경계 안에서 조선인의 학문적 성취와 연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知識慾'과 '讀書熱'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과 우정, 사랑과 같은 감정이 발현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P는 사랑의 조건으로 "황금과 용모와 재지"를 내세운다. 그 중에서 윤광호가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지식뿐이다. 그가 자신의 존재 근거로 생각했던 학문적 성취가 사랑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자괴감은 결국 자살을 초래한다. 이광수는 지식인으로서 윤광호가 가진 고독감과 적막을 "空洞"에 비유한다. 「방황」의 '나'가 국가와 민족이 가진 추상성의 대리인 K와의 사랑을 시작했다면, 윤광호는 미소년 P에게 특대생이 아닌 한 개인으로 인정받고자 사랑을 시작한다.

이광수의 첫 작품 「愛か」와 「윤광호」에 반복되는 '자살'의 문제는 당대 동경의 학생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광수는 「동경잡신」에

45) 심생, 「만히 넓혀진 소설의 모델 이약이」, 《別乾坤》3호(1927.1.1), 76쪽.

서 당대 동경의 “高等學校는自殺의 宗家라는 童謠가 生”⁴⁶⁾하게 될 정도로 실연과 염세관에 의한 자살이 빈번함을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이광수는 “秀才는 흔히 神經質”이라, 조선에 자살자가 적은 것에 대해 ‘사상정도의 저열함’을 수치스러워 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윤광호」에서 이광수는 수재들의 열정과 번민이 타인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내부로 향했을 때, 자살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광수는 윤광호의 자살을 연민하면서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다른 이들의 조소를 통해 죽음의 비극성을 재현한다. 이는 윤광호의 죽음이 「방황」에서의 ‘나’와 달리 조선 수재의 자기 헌신에 대한 공공의 동정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V. 앓을 전이하는 학교 밖의 여성들

학생과 교사가 식민지 시대 학교 내부의 풍경을 보여준다면, ‘학교 밖의 여성들’은 학교와 학생을 바라보는 외부적 시선을 통해 당대 ‘학교의 외연’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1910년대 조선에서 여성의 취학률은 단, 4%에 불과했다.⁴⁷⁾ 「무정」에서 정혼한 부인에 대해 남편이 싫은 이유를 공공연히 말하기에 조선 여성의 취학률은 지극히 미미했던 것이다. 그 점에 입각해볼 때, 「농촌계발」에서 부모의 혼인계약에 의해 팔려가듯 집을 떠나는 난희가 구제되어 가는 곳이 ‘숙명여학교’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김일은 노인 안승지에게 250원에 후실로 팔려가는 난희라는 소녀의 운명을 마을 사람들의 운명과 동일시한다. 김일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연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감화된 자는 부모의 강제에 의해 혼인한 부인들이다. 이들의 눈물은 비도덕적인 안승지를 짐승으로 전락시키고, 난희 아버지에게 “양심”을 불러일으킨다. 혼인과 여자교육에 대한 김일의 연설은 ‘말할 수 없는’ 여성의 발화,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자각, ‘비윤리적 남성’을 단죄하는 기능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애도하는 김일의 연설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共同感情”, 즉 “社會心”⁴⁸⁾을 경험한다. ‘규범’이 집단의 사회적 행위에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면, 규범론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화와 개인의 내면

46) 이광수, 「동경잡신」, 앞의 책, 300쪽.

47) 金富子, 조경희·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일조각, 2009), 89쪽.

48) 이광수, 「농촌계발」, 위의 책, 93쪽.

화, 그에 대한 동조, 갈등, 일탈 등이다. 김일에 의하면, 여성이 '시대의 희생'이 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여성교육을 강조하는 김일의 언어는 여성을 중심에 두되, 배우지 못한 여성은 더욱 배제될 가능성을 은폐하고 있다. 김일은 농촌계발 운동을 진행 중인 금촌의 첫 번째 유학생이 여자인 것이 '이상하다'고 표현한다. 이는 이광수가 여자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교육기관 중에 여성교육기관이 가장 나중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난회의 유학은 '이상한 사건'이기에 충분하다. 제국이 배제한 여성의 교육을 최우선에 둔 김일의 의식과 행동은 식민지 교육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자를 중심에 두는 '전복'의 힘을 갖는다.

이상한 사건으로서의 여학생 유학은 장편 『무정』에 이르러서는 영채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난다. 배우지 못한 여성에 대한 싫은 감정이 연민으로 변화하고, 같은 선각자로서의 동지애로 변화하기까지 이광수는 '선지자의 숭고한 희생', '여성의 눈물', '대중의 공동감정'을 필요로 한다. 형식은 영채와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상상하면서도, 문득 영채가 "교육 없는 여자"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다. 형식에게 있어 '무식한 여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가져올 수 없다. 이광수는 단편 「무정」에서 본처를 버리는 남자의 심리를 '이유 없는' 거부로 형상화한 것과 달리, 장편 『무정』에서 영채의 학문적 결핍을 아내로서의 자격 박탈로 형상화한다. "내 마음과 내 사상을 알아줄 만한 공부가 없으면 어쩌나"⁴⁹⁾ 하는 형식의 불안감은, 영채의 "말에 문학적 색채"가 있어 고등교육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으로 해소된다.

학교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영채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는 선망의식을 통해 형식을 바라본다. 그러나 『무정』에서 선형은 교육제도 내부의 서열화를 체험한 자이기에 교사인 형식이 자신의 남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신교육을 받은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가 가지는 의식의 '차이'는 식민지 남성에게 의해 더욱 극대화된다. 이광수의 단편 「무정」(1910)에서 유학생 남편은 조흔한 여자가 왜 싫은지 말하지 못한다. 그가 배운 것은 조흔이 나쁘다는 것이지, 조흔한 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그냥' 싫다는 논리나, '왜 싫은지 모른다'는

49) 이광수, 「무정」, 앞의 책, 31쪽.

근거 없는 감정의 고백은, 사실 ‘교육받지 않은’이라는 이유를 은폐하고 있다.

이광수가 중심으로 내세우는 인물들은 대부분 “학교 성적도 매양 일이 호를 다투었다”⁵⁰⁾, 혹은 “교내에 조선 재원의 명성이 자자하였다”⁵¹⁾는 수식어를 갖는다. 장편 『무정』에서 선형은 영어를 배우며 “유쾌한 자랑”⁵²⁾을 느낀다.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선포하여 관립 외국어학교를 없앤 후,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세우고, 영어교육을 제한한다. 이 시기 고등여학교의 영어 과목은 폐지된다.⁵³⁾ 선형과 형식이 처음 만난 자리가 학교 밖, ‘과외의’ 장이라는 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다. 선형은 정규 교육을 넘어서 과잉상태의 교육을 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문명습득의 수단인 영어를 학습함으로써 자신이 문명인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형식이 김장로의 딸 선형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붙은 ‘유학생’과 ‘영어교사’라는 레테르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영어교사인 형식의 실존은 ‘식민지 학교’라는 특수한 지적 공간, 그 위에 놓인 ‘영어’라는 특수한 분야와 관련된다. 학교교육을 넘어서 자리에서까지 영어를 습득하는 선형은 신문명 습득의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문명기계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다. 부잣집 여학생이라는 위상은 ‘신문의 삼면에 보이는 강도, 살인, 사기, 간음, 굶어 죽은 자, 자살한 자 등 범죄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범죄적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영채의 삶은 작품 속에서 선형의 삶과 대조된다.

식민지 교육제도의 영향력은 ‘취학’이라는 조선인들의 교육경험만이 아니라, ‘불취학’이라는 교육소외의 경험까지 고찰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불취학 상태의 여성들이 보이는 교육에 대한 선망의식이야말로 식민지 시대 ‘학교’라는 공간을 구축하고, 신교육·신여성이라는 환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선형과 달리, 영채는 아버지의 자살, 겁탈, 기생으로서의 생활이라는 시련을 겪은 인물이다. 또한, 그녀는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으며, 『열녀전』, 『내척』, 『소학』이 지배한 일생을 살아간다. 영채가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만난 부인은 영채가 학교에 안 다녔다는 말을

50) 이광수, 「소년의 비애」, 『이광수전집』8(삼중당, 1972), 28쪽.

51) 이광수, 「어린 벗에게」, 『이광수전집』8(삼중당, 1972), 89쪽.

52) 이광수, 「무정」, 앞의 책, 55쪽.

53) 강내희, 「식민지시대 영어교육과 영어의 사회적 위상」, 『안과 밖』18(영미문학연구학회, 2005), 273쪽.

듣고 ‘경멸’과 ‘호기심’의 시선을 보낸다. 경멸스런 무학력자, 유학생이 아니면서도 일본어를 잘하는 비밀스런 여자라는 인상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영채의 외연을 구성한다. 이처럼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에는 배운 여자와 배우지 못한 여자라는 두 개의 표상이 공존한다.

영채의 독서력은 『무정』 연재가 끝날 무렵 발표된 「소년의 비애」에서 난수의 독서력과 상응한다. 학교에 가지 못한 난수와 같은 처녀들은 『열녀전』, 『내척』, 『소학』을 읽지만, 학생 문호는 자매들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언문소설 읽기를 권장한다. 문호는 자신이 서울 가는 길에 난수를 데려가 공부시키려 하지만, 난수는 부모들의 정혼을 거역하지 못하고 천치에게 시집을 간다. 문호는 이때, 난수를 “죽은 사람”에 비유한다. 학생 문호에 대한 난수의 기다림이나, 신교육에 대한 영채의 전망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학교 밖 조선 여성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광수 소설에서 조선 여성들이 전망하는 학교의 이상성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교육론에 영향 받은 것이다. 「동경잡신」에서 이광수는 동창들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묘를 찾아가며 그의 교육론을 언급한다.

그의 教旨는 去舊就新이요, 個人 個人의 獨立自尊이었다. 獨立自尊이라 함은 個人 個人이 各各 確固하고 權威있는 人格을 備하여 思코 言코 行함을 人에게 盲從하지 말고 自己의 理性을 判斷하라 하며, 個人 個人이 各 一藝一能을 具하여 衣食住와 子女의 教育 等 萬般社會에 對한 義務를 自力으로 盡하라 함이니 此는 實로 亘萬世不易할 興國策이라.⁵⁴⁾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이라는 집단을 교육시키지만,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소년의 비애」에서 재주 있는 난수를 시집이 아닌 학교로 보내고자 했던 문호의 심경, 『무정』에서 영채가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길 바라는 형식과 병욱의 심경은 바로 이러한 교육론에 기반한다. 영채는 병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마음속에 ‘허깨비’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를 사랑한다고 속이면서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형식이 자신의 실존과 관계되는 국가나 학생, 교사적 지위의 상실감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되기’를 고안했던 것처럼, 영채는 자신의 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형식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향학열’을 불태운다. 이때, 영채가 모범으로 삼았던

54) 이광수, 「동경잡신」, 앞의 책, 318쪽.

대상은 열녀에서 여학생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이광수는 병옥만이 영채에게 신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상태로 그리지 않는다. 서양식 감정을 맛보고 낯은 것을 모두 싫어하던 병옥은 영채를 통해 옛날 사상이 가진 맛을 알게 된다.

새삼스럽게 『소학』이며 『열녀전』이며 한시 한문을 배우고 싶은 생각까지도 나게 되었다. 집에서 먼저 문은 『고문진보』 같은 것을 내어서 이것저것 영채에게 배우기도 하고 배운 것을 외우기도 하였다. ‘참 재미있다’하고 어린애같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내어 읊기도 하였다.⁵⁵⁾

영채는 병옥을 통해 음악학교와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병옥은 영채를 통해서 사현금과 한시, 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병옥이 학생으로서 영채에게 신교육의 세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영채는 병옥에게 학교 밖의 조선 여성이 잘 이해한 옛 사상의 미덕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영채는 병옥을 통해 처음 ‘사람의 피가 끊기 시작’하는 것, 모험이 아닌 독립한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 영채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준 것은 배운 여자가 아니라, ‘못 배운 여자에 대한 동정’과 ‘신여성이 발화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광수는 문명기계와 같은 선형이나 학교 밖의 조성 여성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병옥의 입을 통해 발화함으로써 참지식의 힘을 보여준다. 알지 못하는 감정을 강박적으로 주입하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영채는 병옥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다. 이 둘의 관계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앓의 전이’에 기인한다. 이 교외의 학습은 식민지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될 수 있다.

형식, 선형, 병옥, 영채가 삼랑진 수해현장에서 모금운동을 벌이며, 참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하급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일제의 일방적 주입교육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이때, 형식은 ‘이상하다’는 생각과 ‘희미한 기쁨’을 동시에 느낀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붙은 이러한 수식어들은 ‘앓을 전이하는 관계성’이 가져온 감각이다. 형식을 포함한 『무정』 속의 인물들은 ‘유정(有情)’한 세상이 유정한 교육과 계몽을 통해 유인됨을 보여준다. 일본이 시행한 교육정책이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명기계를 목표로 한 것과 달리, 이들은 학교 밖에서 각자가 가진 지식을 통해 조선인 사이의 계몽적

55) 이광수, 『무정』, 앞의 책, 157쪽.

관계성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개별자로서의 자기를 인식한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의 외부를 경유했다가 참교육을 위해 조선으로 회유한다. 이렇듯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에서 지식인들은 제국의 교육정책을 수용하되,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변용시키는 힘을 보여준다.

V. 결론

지금까지 1910년대 이광수 초기 문학에 나타난 조선의 향학열과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에는 식민지 교육에 대한 회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배신감, 교사를 감시하는 학생 등이 나타난다. 이는 이광수 초기 문학을 계몽성과 동일시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의 학교 풍경은 총량한 신민을 양성하고자 했던 일본의 교육적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 그의 소설에는 동경 유학을 하고 돌아온 청년 이광수의 지적 자만심이 나타나며, 당대 학생들의 향학열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적 위계를 전복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민족의 교화라는 대의와 식민지 교사에 안주할 수 없는 당대 지식인의 자기 환멸은 작품 속 인물의 양면적 속성으로 나타난다. 그의 작품 속에 교육적 열정과 교사에 대한 회의감이 공존하는 이유는 식민지 지식인이 갖는 이러한 양가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광수 문학에서 학교는 교사인 이광수의 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학생이었던 작가의 기억을 환기하는 장소이다. 식민지 학교는 교사이자 학생이었던 이광수의 의식을 통해 굴절되고 소설로 재현된다. 소설 속에서 학생들은 사제지간의 관계성 이외에 우정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동맹휴학과 동성애라는 사건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건은 당대 일본과 조선의 학생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학생문화의 표상이 되었던 것들이다. 식민지 조선의 향학열은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으로 유도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교육공간의 변화와 사랑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발화가 타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조선의 학생들은 자신이 느끼는 공허감을 병처럼 앓거나, 자살에 이른다. 이는 당대 문명화의 속도가 학생들에게 환상과 동시에 자기 소진의 고통을 가져다주었음을 폭로한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광수의 초기문학은 제국의 교육정책을 모방하

되, 그 교육정책을 전유하여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는 자들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광수의 애국심이 고안한 지식인의 윤리를 보여준다. 그들은 학생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앎을 전이하며, 진정한 교육은 사랑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소설 속에서 교사, 학생, 학교를 선망하는 학교 밖의 여성들은 앎의 전이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참교육이나 새로운 조선과 같은 삶의 목표를 통해 식민지 교육에 대한 전복을 꾀한다. 학교를 향한 이들의 시선은 학교의 외연을 구축하고, 교육제도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된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학교문화에는 문명화의 열망과 일본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공존했던 것이다.

교사, 지사, 문사로서의 일생을 살았던 이광수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식민지 상황 속에서 교사와 지사로서 발화할 수 없었던 것들을 폭로하고 고백한다. 유정한 세상은 유정한 교육이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조선적 신념이 지식인 이광수의 글쓰기를 유인했던 것이다. 배움을 얻고, 배움을 전하는 자의 내면을 소설에 투사했던 초기 그의 글쓰기는 세 개의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현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발화대를 필요로 한다. 교단에 선 문사 이광수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힘은 민족계몽의 열정과 자기현시의 욕망이었다.

학교 내부의 풍경을 통해 조선의 교육적 상황과 학생문화를 재현하던 이광수는 이후, 학교를 떠나 조선청년독립단에 가담하고,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한다. "오산학교는 탈출하는 지사들의 역원(驛院) 같기도 했다"⁵⁶는 김도태의 말처럼, 이광수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문단을 학교를 떠나 지사의 글쓰기를 행한다. 민족의 교화가 조선과 조선인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 열정의 투사 대상인 '조선(인)'은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광수는 감각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열정이 초래할 수 있는 추상성과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 독립선언과 같은 '사건성'을 마련한다. 1922년, 이광수가 경성학교와 경신학교의 교사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글쓰기를 유인했던 힘은 바로 이 사건이 갖는 실재성이다. 1910년대 소설에 이광수 자신의 체험이 자주 나타났던 것은 그가 자신을 포함한 조선의 민족애, 향학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현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56) 김도태, 『南崗李昇薰傳記』(문교사, 1950), 236쪽.

참 고 문 헌

- 『동광』, 《매일신보》, 『별건곤』, 『삼천리』, 『소년』, 『청춘』
이광수, 『이광수전집』1-10, 삼중당, 1972.
이광수, 『島山安昌浩』, 대성문화사, 1959.
- 김도태, 『남강 이승훈전』, 문교사, 195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솔, 1999.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진균·정근식 외,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김호일, 『한국 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2005.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5.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최승만, 『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출판부, 1979.
홍문중, 『조선에서의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 학지사, 2003.
金富子, 조경희 외 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일조각, 2009.
波田野節子, 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 소명, 2008.
平田由美, 임경화 역,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 소명, 2008.
Ball, Stephen J., 이우진 역, 『푸코와 교육』, 청계, 2007.
Chatterjee, Partha,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a derivative
discour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Chatterjee, Partha, Texts of power: Emerging Disciplines in Colonial Benga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5.
Foucault, Michel,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7.
Gay, Peter, 주명철 역, 『계몽주의의 기원』, 민음사, 1998.
Kant, Immanuel, 이한구 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Rancière, Jacques,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궁리, 2008.
Spivak, Gayatri Chakravorty, 태혜숙 역, 『교육기계안의 바깥에서』, 갈무리, 2006.
- 강내희, 「식민지시대 영어교육과 영어의 사회적 위상」, 『안과 밖』18, 영미문학연구학회,
2005, 262-293쪽.
김영민, 「이광수 초기 문학의 변모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34, 현대문학연구학회,
2008.2, 107-140쪽.

- 김형식, 「理想郷 龍洞과 五山學校」, 『한국기독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85, 14-16쪽.
- 박제철, 「죄책감과 수치심 사이에서의 윤리」, 『문학동네』55, 문학동네, 2008년 여름. 381-396쪽.
- 박혜경, 「〈무정〉의 계몽성과 근대성 재고」, 『국어국문학』129, 국어국문학회, 2002, 443-463쪽.
- 손정수 「1910년대 이광수의 문학론과 작품의 관련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85, 일지사, 1996, 40-64쪽.
- 신지연, 「이광수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21, 상허학회, 2007.10, 181-221쪽.
- 이재선, 「형성적 교육소설로서의 〈무정〉」, 『문학사상』232, 1992.2, 80-91쪽.
- 이재선, 「〈무정〉과 가르침의 시학」, 『문학사상』317, 1999.3, 42-27쪽.
- 정희모, 「이광수의 초기사상과 문학론」, 『문학과 의식』29, 화서, 1995.8, 137-465쪽.
-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Chatterjee, Partha, 강내희 역, 「탈식민지 민주 국가들에서의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 『문화과학』25호, 문화과학사, 2001, 133-150쪽.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이광수의 문학에 나타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1910년대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교육제도에 대한 당대 조선인과 작가의 의식을 고찰한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이광수의 학교에 대한 열정 및 이상은 늘 교육에 대한 회의, 고독감과 공존한다. 본고는 이광수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학교'라는 공간이 지사, 문사, 교사라는 자기 역할에 대한 그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공간임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1910년대 조선의 교육적 상황과 이광수의 민족적 소명의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된 그의 소설은 당대 교육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식인의 글쓰기를 유인하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낸다. 그에게 있어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되, 사제, 학우, 동료 등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광수는 스승, 제자, 친구라는 관계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식민지 교육정책의 전복을 꾀한다.

학생이 식민지 시대 학교 안의 풍경을 보여준다면, 학교로부터 배제된 주체들은 식민지 교육의 배타성을 보여준다. 또한, 식민지 교육에 대한 회의, 교사에 대한 배신감, 교사를 감시하는 학생 등 조선의 학교가 보여주는 풍경은 하급 기능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일본의 교육적 기대감과 는 거리가 멀다. 배우지 못한 여성에 대한 싫음이 연민으로 변화하고, 동지애로 변화하기까지 이광수는 선지자의 숭고한 희생, 여성의 눈물, 대중적 공감을 필요로 한다. 일본이 시행한 교육정책이 '충량한 신민'을 목표로 한 것과 달리, 이광수 소설의 학생과 학교 밖의 주체들은 각자가 가진 지적 이력을 통해 앎을 전이한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교육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회유한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제국의 교육제도를 모방하되, 그것을 전유하여 신조선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투고일 2010. 1. 17.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3. 2.

주제어(keyword) 이광수(Lee Gwangsu), 지적 욕망(intellectual appetite), 학교(school), 교사 (teacher), 학생(student), 식민지 교육(colonial education), 관계성(relationship), 학교문화(school culture), 앎의 전이(transfer of knowledge), 전유(appropriation)